

<사랑해>

김천겸

그 뭐랄까
더 멋진 사람에게 보내는게 아니라
내가 더 멋있어져 네 옆에 서 있고 싶어

눈에 보이던 좁디좁은 환상이
알고 보니 감당할 수 없는 큰 가치였지만
그 가치는 당연함이 되고
어깨에 올라온 좁쌀과 모래쫄가리에 미쳐
깨진 환상의 파편에
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지

자신을 짓누르는 바위를
휘감는 넝쿨처럼
무식해 보일 수도 있겠지

그런데
너라면
그게 행복이 돼
그래서 이렇게 외치는거야

<너를 그렇게>

김천겸

내 가사 상태 속 무한한 지식들
너를 바라볼 때 모두 빨강게 빛났고
그 빛들은 너를 빨강게 바랬지

하지만 이제는 그곳에 큰 울림을 전하려 해
'너라는 빛을 나는 그렇게 바랬지'

<담배>

김천겸

혹시 그대에게 미칠까
오늘도 나는 최선도 아닌 차선의 맨 끝이
나지막하게도 보이지 않는 정자 뒤에 숨어서
몰래 거칠고 뿌연 한 줌의 숨을 내뿔었죠

그대에게 돌아가는 길
혹여나 거친 공기가 따라 들어올까 걱정되어
돌아가고 돌아가고 돌아갔습니다
그러나 그대는 결국 거친 공기를 마셨고
나에게서 돌아섰죠

그대에게 미치고 싶지만
저는 그대에게 미치지 못해
오늘도 거친 숨만 미치게 내뿔습니다